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권은정
제 목	나를 만나는 문		
<p>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큰 관심을 갖고 좋아했습니다. 미술치료 공부를 시작하며 미술을 좋아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보니 짧은 40해의 인생을 거꾸로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유년시절을 돌아보니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은 아니었으나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불안하고 지친 마음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좋은 친구를 부러워했던 어린 나를 떠올렸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부끄럽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제 본연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둠은 감추고 겉으로 밝은 모습을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내면의 얼굴과 실제의 얼굴의 차이에서 오는 괴로움을 가슴 한 구석에 가지고 자랐습니다. 제가 미술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마음을 언어로 직접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맞닥뜨린 갈등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에 위기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동이 쌓여 생긴 마음의 분노들을 미술을 통해 드러내며 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p> <p>미술치료학과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며 이론적인 내용들과 다양한 치료 사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6과목을 수강한 제 게 매주 주어진 12시간의 수업들은 축축한 단비 같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는 교수님들의 진심은 대면수업 이상으로 잘 전달되었습니다.</p> <p>수업을 듣고 나면 감상에 젖은 채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저를 찾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세심히 돌아보았고 유년시절의 마음을 늦게 라도 알아차렸으며 사람들 과의 관계 에서의 제 선택과 행동의 이유들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p> <p>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의 편 입학은 제가 외면했던 진정한 ‘나’를 만나는 문을 열어준 열쇠 와도 같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을 수기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낸 것도, 말하기 꺼려했던 유년시절의 상처를 담담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저는 미술대학을 나오고,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선생님이 되고 싶어 미술교육대 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임용시험에 떨어지고 결혼을 한 뒤,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며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른의 세계로 입문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엄마' 라는 난이도 높은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찻으나 성숙하지 못했던 엄마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상상으로 오랜 시간 그려왔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두 아이에게 마음을 많이 쏟아 냈습니다. 넘치게 쏟아낸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눈은 늘 아이들 만을 향했고, 제 기대만큼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자 자주 실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고개 들어 제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고,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만의 목마름은 아니었는지 주변의 마음 맞는 이웃 엄마들과 뜻을 모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아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림책으로 채운 공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림책방 노른자>라는 간판을 내걸고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작은 책방의 공동대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림책방 창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자녀를 통해 그림책과 항상 가까이 있다는 점과 제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미술이 그림책의 주인공이라는 점,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림책과 마음 돌보기에 푹 빠진 어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간 운영을 위해 각자의 특기를 살려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묵혀 둔 전공을 살려 그림책과 미술을 엮어 어린이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그림책과 함께 하는 시간을 쌓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어린이들 앞에서 몸을 떨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쯤엔 평범한 동네 엄마끼리 모여 그림책방을 열었다는 소문이 점점 커지며 잡지와 라디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하면서도 '나는 아직 부족한데, 아직 내게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불안함이 문득 문득 올라 왔습니다. 불안함은 둘째 아이를 보며 더 커졌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둘째 아이가 공개수업자리에서 검정색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친구와 비교 평가를 받았습니다.

"00이는 무지개 색으로 예쁘게 칠했구나. 색을 많이 쓰는 것을 보니 마음이 밝고 행복하구나. 그런데 유현이는....."

라며 말을 생략하며 어두운 표정을 비추는 선생님의 모습에 어디론 가 숨고 싶었

습니다. 아이의 그림으로 나타난 제 내면의 어두운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색칠한 그림 한 장으로 아이를 앞에 두고 단정 짓는 말에 야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언젠가 미술치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방에서 그림책을 읽고 미술로 표현하는 수업에선 흠을 만지는 도예 시간도 가졌습니다. 4명의 어린이가 함께 도자기를 만들던 어느 날 한 어린이가 아빠에게 줄 컵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있던 다른 어린이가 말했습니다.

“난 아빠 없어. 삼촌 것 만들 거야. 우리 아빠는 나 버렸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 우리 아빤 하늘에 있어. 일하다가 피곤해서 아팠어. 하늘나라에 갔어.”

짧은 시간에 흐른 어린이들의 대화였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두 어린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렸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안아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미술치료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미술치료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과 대학교 편입, 사설 교육원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책방일과 집안일을 꾸리며 대학원 수업을 오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대학원을 한차례 경험 했던지라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대학원 수업은 미술치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제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값비싼 등록금도 부담스러웠 습니다. 기초를 세우고 단단한 배움을 쌓을 수 있으며 학력까지 인정되는 사이버 대학교가 좋겠다고 판단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온라인 수업을 듣기에도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에 미술 치료학과 혹은 예술치료학과가 있는 사이버 대학교는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각 대학의 학과장님과 교수님의 이력사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권의 미술치료 책을 통해 만났던 주리애 학과장님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고, 현직 미술치료사 친구에게 물으니 고민하지 말고 주리애 학과장님이 계신 한양사이버대학으로 가라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입학원서를 냈고 기쁘게도 편입학에 합격해 21학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로 오랜만에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며 두 계절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마다 거실은 저만의 서재로 변신합니다. 고요한 밤 공기를 맡으며 따뜻한 차 한잔을 옆에 두고 모니터 너머 교수님들을 마주하면 낮 동안 쌓인 피곤함은 어느새 잊은 채 강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 수강 신청을 할 때 미술치료학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1년 선배님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의 특성상 동기끼리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와 후배들을 팀으로 연결해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정보와 경험과 친목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단체채팅을 이용해 만난 9명의 동기들은 선배님 덕분에 모두 무사히 수강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줌 프로그램을 통해 몇 차례의 비대면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의 얼굴을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해졌습니다. 자리를 마련해준 한 양사이버대학교와 멘토 선배님에게 고마웠습니다.

수강신청에 앞서 선배님의 조언은 5과목까지 듣고 무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듣고 싶은 과목이 너무 많아 수강신청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최종 고른 과목은 [미술치료개론], [미술과 정신병리], [미술매체 연구], [상담의 이론과 실제], [놀이치료], [아동 발달과 병리]였습니다. 미술치료에 대해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선택하게 된 [미술치료개론], 미술재료의 미술치료로의 쓰임이 궁금했던 마음으로 선택한 [미술매체 연구], 학과장님의 수업이라 고민없이 선택한 [미술과 정신병리], [놀이치료]와 [아동발달과 병리]가 타과의 수업이지만 자녀들과 수업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을 떠올리며 선택했습니다.

둘째아이가 모래놀이 치료를 받고 있어 더욱 관심이 있던 분야였습니다.

상담과 미술치료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멘토 선배님의 조언에 따라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마지막으로 골라 총 6가지 과목으로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술치료개론]은 미술치료학에 대한 눈높이 접근법으로 처음 미술치료를 공부하는 저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장인 주리아 교수님의 실습영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술작업을 하며 행복해하시는 교수님의 얼굴을 보며 같이 행복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실습을 하고 소감을 적어 과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과제가 아니었다면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스스로를 위한 그림한장을 그리기 어렵다는 것을 교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미술매체연구]는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현진 교수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매체를 기존의 쓰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대체한 토론과 레포트도 흥미로웠습니다. 자연에 대해 사유하고 글을 쓰는 작업은 미술 매체 연구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과제였기에 재미있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술과 정신병리]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정신병리 이론을 주리아 교수님의 다양한 사례 설명을 듣고 이해했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병리는 나로부터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놀이치료]는 제 자녀와 수업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특별히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유쾌한 김태은 교수님의 강의는 지루함을 느낄 새 없이 재미있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어서 기억에 고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팁을 많이 배운 수업이었습니다.

[아동 발달과 병리]는 자녀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론적 근원이 되어줄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강의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전달해 주는 신경민 교수님 덕분에 짧은 시간동안 많이 얻는 강의였습니다.

[상담의 이론과 실제]는 상담학과의 수업이었지만, 미술치료학과에서도 꼭 필요한 수업임을 수업을 듣는 내내 느꼈습니다. 김윤주 교수님의 편안한 입담에 지루할 새 없이 여러 심리학자들의 성장과정부터 이론의 핵심까지 모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면 좋은 책 여러 권을 읽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술치료공부를 시작한 뒤, 일을 통해 만나는 그림책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책의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그림을 읽고 해석하기에 집중 했었다면 현재는 그림과 텍스트를 통해 보여지는 인물들의 관계, 마음, 뒷모습, 아픔, 성장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깊이 읽는 그림책의 재미에 점점 더 빠졌습니다. 아이 책장이 아닌 제 책장에 꽂히는 그림책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린이 들과의 그림책 미술 수업 역시 방향을 점차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결과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기로 하고 한 가지 목표를 정하기보단 어린이 각자의 마음의 방향이 향하는 쪽으로 작업 목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정해진 커리큘럼은 그림책뿐입니다. 그림책을 읽고,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해석하고 주어진 재료로 자유로운 작업을 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감각을 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어린이들을 막는 것은 없어야 작업에 진정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몰입이 곧 치유적인 힘을 지닌다고 [미술치료개론] 수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습니다.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편견 없이 어린이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무엇에도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작품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 수업에 오는 시간을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린다는 말을 들을 때 설렘, 가슴 벅찼습니다. 입학 전에는 공부를 시작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에 소홀해 질것을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공부를 통해 일을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풍성한 배움과 행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리아 학과장님이 [미술치료개론]실습 영상을 통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검정색은 모든 마음을 담은 색입니다.”

저는 누군가 제게 이 말을 해 주길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의 둘째 아이가 그린 검정색 그림이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 받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내면의 어둠을 아이에게 물들게 했다는 죄책감에서부터 풀려난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불안함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책방에서의 활동이 때론 책방 밖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한양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한 뒤 제게 여러 차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근의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수업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미술치료사 자격증은 없지만 미술치료학과에 재학중임을 이력사항에 밝혔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림책을 주제로 기획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서관과의 협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비대면 zoom을 통해 <무슨 생각하니? - 그림책으로 예술 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어린이들의 미술수업을 진행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온라인의 힘을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경험한 바 있어 용기를 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비대면의 특성으로 어린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혼자만의 작품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학교로 파견되는 문예체 협력교사에 지원해 좋은 소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림책 미술'수업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로 토닥토닥 육퇴 후,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의 그림책 활동가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육아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참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싸 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리애 학과장님의 [미술치료개론]의 실습영상에서 배운 색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작업을 참여자와 나눌 계획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참여자 스스로에게 몰입하고, 그리는 행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술치료 공부를 시작하기 전처럼 '난 아직 부족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제안들에 흔쾌히 수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술치료학과 공부를 통해 스스로가 성장하는 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 습니다.

앞으로 미술치료학과의 교과목들을 수강하며, 서두르지 않는 공부를 오래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동학과, 상담학과의 수업도 함께 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선배를 통해서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1학기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입학 당시에 몰랐던 사실이라 장학금을 받고 마치 산타의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를 했을 뿐인데 장학금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 미술치료 공부에 더 깊이 빠지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으니 제 능력을 키워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고 싶다는 좋은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배움을 바탕으로 현장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습니다. 졸업 후엔 미술치료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이어 가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엄마가 되어 앞으로 걸어 나갈 남은 생의 기다란 길을 밝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미술치료학과의 좋은 수업들을 통해 제 마음을 쓰다듬으며, 인생에서의 거리와 속도보다는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동시에 어린이들과 미술치료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제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